

■ '개혁·진보의 본산' 광주 시민단체 송년회 풍경

침울... 허탈... "쓰리지만 좌절 말자"

1980년 5·18민중항쟁 이후 우리나라 진보·개혁진영의 본산 역할을 해왔던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27일 오후 송년회를 갖고 한해를 마감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우울했다. 진보·개혁세력이 지난 1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10년 만에 보수세력인 한나라당에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4시 '광주지역 시민단체 송년회'가 열린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 대동홀은 침울함과 허탈감으로 가득했다. 150여명의 참석자들의 얼굴은 근심에 차 있었다.

대선 패배를 의식한 듯 고개를 숙인 채 행사를 지켜보는 이들도 많았다. "가슴 쓰리지만 좌절하지 말자"라며 서로를 위안하기도 했다. 열기와 희망으로 뜨거웠던 예전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다.

각 단체 대표들의 대화도 회한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패배의식을 털어내고 반성과 함께 제도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흥길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대화에서 "대선 패배의 아픔은 잊을 수 없다"며 "내년부터는 민주화의 핵심인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 새로운 구심점으로 거듭나자"라고 말했다.

박상춘 6·15 공동위 조직국장도 "잘못 났 신랄함을 고쳐 매고 관성은 없었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진보연대, 5·18재단 등 150여 명

"뼈저리게 반성하고 실패 극복하자"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으며 편협한 타협과 기회주의적 행태를 과감히 털고 진실로 시민에 다가서자"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자"고 말했다.

강기수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내년부터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라며 보수세력 집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길 6·15 공동위 상임 공동대표는 "절대 좌절해서는 안 된다. 회원 모두가 대선의 아픔과 패배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새해 화두는 '와신상담'으로 삼고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반성한 뒤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광주민중예술인총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 종교인 광화회의, 5·18 기념재단, 6·15 공동위 광주·전남본부 등 진보적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의 송년 한마당이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송년회는 진보진영의 대선 패배로 아쉬움과 허탈함 속에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불법 오락실 100여개 '성업'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

비상구 등 설치 안해

광주지역에서 불법영업 중인 사행성 오락실 대부분이 영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행성 오락실 대부분은 외부로 임대상가·독서실·식당 등으로 위장하고 출입구도 이중 철문을 설치, CCTV와 무전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것은 물론, 오락실 내부에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등을 갖춘 곳도 거의 없어 대형참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또 야간에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과 방음재를 설치해 두고 있어 인화성도 매우 높았다.

지난 26일 경기도 안산시 불법성인오락실에서 불이나 불과 10분만에 5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도 성인오락실의 불법 영업

행태 때문이다. 이 오락실은 100여㎡의 공간에 성인 오락기 40여대가 다닥다닥 놓여 있었으나, 내부에 비상구는 커녕 창문 하나 없었다.

광주의 오락실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 북부경찰이 지난 26일 단속한 북구 두암동의 모 건물 지하 1층 오락실의 경우 소방시설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또 이 업소는 단골손님과 주인만이 아는 암호를 사용해 출입문을 열어주는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외부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6개월 동안 350여 곳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단속, 게임기 1만5천대와 현금 7억3천여만 원을 압수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 시내에만 100여개의 오락실이 음성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27일 '불법성인오락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395) 김장동



다들 물어봐 신발재미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학교 대학원
KCC정보시스템정보 생산·시공
▶ 02-2629-1414-1402 ▶ 02-2629-1407-1408
(주)본드나리 KCC건설, 연세대학교 대학원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프
▶ 02-2629-1414-1402 ▶ 02-2629-1407-1408

광주, 하룻밤 3건... '날치기 주의보'

오토바이 탄 2인조

연말연시 맞아 활개

연말연시를 맞아 하룻밤 새 광주에서 3건의 날치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 '날치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27일 새벽 0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봉산중학교 앞길에서 박모(여·41·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씨가 오토바이를 탄 2명의 남자에게 현금 10만원과 상품권 20만원, 신용카드 등이 든 손가방을 날치기 당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170cm의 키에 스포츠형 머리를 한 남자 2명이 오토바이를 탄 채 손가방을 낚아 채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26일 밤 10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모 슈퍼마켓 앞길에서 조모(44·광주시 북구 산수동)씨가 오토바이를 탄 2인조에게 현금 3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담긴 손가방을 강탈당했다. 또 이날 밤 10시 27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8원동 앞에서 김모(여·52)씨가 역시 오토바이를 탄 2명에게 현금 20만원 등이 든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

경찰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스포츠형 머리, 스쿠터 종류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날치기범을 쫓고 있으나 용의자의 인상적자가 각기 다르고 범행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고의 사고 역대 행진

보험사기단 9명 검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역대 보험금을 행진 보험전문사기단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

일 아내와 친구 등 8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이들과 짜고 고의로 6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1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행진 정모(44·여주시 여서동)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의 아내 문모(43)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택시비 인내고 도주 쫓아온 기사 폭행

상나팔

광주 서부경찰은 27일 택시요금 내지 않고 달아나다 붙잡혀 택시 기사를 때린 강모(32·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6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석산고 앞에서 김모(54)씨의 개인택시를 타고 서구 치평동 롯데마트까지 간 뒤 택시 요금 5천원을 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다 김씨에게 붙잡혔다는 것.

강씨는 택시 기사 김씨에게 붙잡힌 뒤에도 김씨의 멍살을 잡고 마구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

경찰은 경찰 조사에서 "택시 요금을 미리 낸 줄 알고 무작정 내렸으나 택시 기사 김씨가 계속해서 쫓아오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렀다"고 훔설수술. /이종형 기자 golee@

여수 실종 선원 수색 사흘째 진전 없어

타르 덩어리 영광 해안까지

어민·방제당국 '초비상'

여수 백도 해상에서 '이스틴 브라이트호'가 침몰한 지 사흘째인 27일 군·경 합동수색팀은 실종선원 14명

에 대한 수색작업을 계속했으나 선원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현재 사고해역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으나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 수색 작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경합동수색팀은 경비정 및 함정 21척, 헬기 3대, 초계기 1대 등을 배치, 수색구역을 거문도 근해까지 더욱 넓히는 등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사고발생 사흘이 지나 실종선원들의 생존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태.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이 영광 앞 바다까지 흘러 들어와 어민과 방제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27일 목포해경 따르면 이날 오전 영광군 법성포에서 24km 떨어진 낙월면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태안 앞 바다에서 흘러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개의 타르덩어리들이 발견됐다.

이 타르덩어리는 길이가 10~60cm 정도로, 조업중이던 어선 은진호(선

장 김세규·48) 선원들이 최초로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목포해경과 영광군 등은 이날 안마도 인근 해상에 경비정과 어업지도선 3척을 파견, 덩어리 10kg을 회수하는 한편,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또 타르덩어리들이 태안 앞바다에서 흘러온 것인지 또는 다른 사고나 선박에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채희중·인현주기자 chae@

광주 전문안비노기과 의원
www.upcrae.com.kr
박기봉수술
상담 (062) 233-5119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722-0100
1021500-9318